

양계 전망 1971년도



채란계의 전망

최 창 해
 <서울시립 농대교수>

양계업은 다른 가축에 비하여 증식이 빠르고 적은 자본과 좁은 면적에서 많은 마리수를 사육할 수 있어 비교적 빨리 경기불황을 가져 오게 된다.

지난해의 양계업을 살펴 보면 근래에 보기 드문 호경기를 맞이하여 닭의 사육수수는 급격히 증가한 관계로 11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난가는 12월에 들어서 부터 한개에 10원정도로 생산자가 판매 하고 있어 양계를 하는 농가에서 또다시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1971년도의 양계업은 과연 어떻게 할까? 사육수수 및 계란의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금년도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나 여기에 몇가지 제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예상하여 보기로 한다.

11월, 12월의 난가를 보면 다음해의 난가를 예측 할수 있다.

12월이 되면 그해에 육추(추기육추한 것은 제외)한 닭은 거의 산란을 하게 되어 가을에 가장 높던 난가는 하락 하는 것이 상례이다. 여기에 과거 12년간의 월별난가 변동을 살펴 보고 금년도 난가를 예측 하기로 한다.

<표 1> 월별 난가 변동표 (12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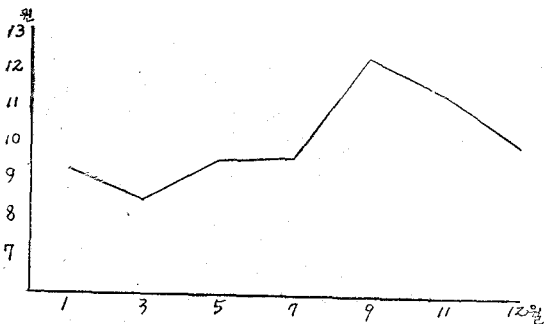
년 도	19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평균
1	2.95	2.86	3.41	3.55	3.90	5.34	8.07	8.67	9.48	10.45	7.80	12.8	6.65
3	2.62	2.55	2.99	2.97	3.26	4.95	7.13	7.70	8.53	8.90	9.00	11.4	6.00
5	3.04	2.67	3.14	3.64	3.78	6.48	8.25	8.50	9.33	10.40	8.40	13.0	6.81
7	3.03	2.82	2.87	3.40	4.17	6.66	8.76	8.97	10.26	9.15	9.70	12.1	6.82
9	4.10	3.83	4.20	4.47	5.77	8.74	10.58	11.17	13.03	10.20	13.50	14.1	8.66
11	3.29	3.38	3.62	4.19	5.82	8.24	9.00	9.18	11.30	9.30	12.50	10.8	7.55
12	2.86	3.29	3.42	3.86	5.70	7.90	8.47	9.23	11.02	9.00	10.70	10.0	7.08
평 균	3.16	3.08	3.37	3.78	4.54	6.90	8.80	9.01	10.35	9.68	10.05	11.92	

※ 난가는 대란(55~61g) 가격

* 채란계의 전망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난가는 가을철인 9월이 가장 높는데 이것은 봄에 육추한 햇닭은 산란을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고 늙은닭은 털갈이를 시작하는 계절이기 때문이고 가장 난가가 싼 달은 3월이다. 봄철이 되면 모든 생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고 기온이 온화하여 년중 산란을 하지 않던 과산제도 이때는 산란을 하게되어 년중에 가장 생산량이 많다. 12월의 난가는 표에서와 같이 1월~6월 사이의 난가 보다 비싸기 때문에 12월 난가로 양계에 수지가 맞지 않으면 다음 해의 전반기의 양계는 적자 운영을 면치못하게 되며 7월서 부터 난가는 상승하나 그때는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산란율이 봄철보다 떨어지므로 난가는 다소 높아도 경영면에서 불태유익 하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12월의 난가가 낮으면 다음 해에 양계에 공황기가 온다는 것을 예보 해주는 것과 같다. 또한 12월의 난가가 그해의 년평균 난가 보다 비슷하거나 싸면 다음해의 양계는 역시 공황기라는 것을 알수 있다. 표1에서 1961년을 보면 년평균 3.37원에 대하여 12월의 난가는 3.42원으로 비슷하고 1965년 년평균 난가 8.80원에 12월의 난가 8.47원, 1968년 년평균 9.65원, 12월 난가 9.00원으로 12월이 싸다. 양계가가 체험한 바와 같이 1961년 1965년 1968년에 공황기로 손해를 본바와 같다. 1970년 역시 12월의 난가 10원으로 년평균 난가 11.92원보다 싸기 때문에 급년 양계의 전망은

〈그림〉 1971년 월별 난가변동 예정표



1월	9.33원
3월	8.47원
5월	9.62원

7월	9.62원
9월	12.23원
11월	10.66원
12월	10.00원

암담 하다고 볼수 있다.

1970년 12월의 난가 10원을 기준으로 하여 표1의 월별 평균난가를 비례해서 계산 하여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2. 계란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추정

계란의 수요를 인구증가율과 국민소득의 증가 및 소득탄성치 [(所得彈性值) 1인당 국민소득이 1% 증가하는데 계란의 소비 증가 지수]에 의하여 추정 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단 소득탄성치 1.36(n) 인구증가율 2.4%(p) 소득증가율 10%(g)로 하면

$$\text{수요율} = p + nq(1+p) = 2.4 + 1.36 \times 10$$

$$(1+0.024) = 16.3 \approx 16$$

즉 계란의 수요율은 1970년보다 1971년이 약 16% 증가 한다는 계산이다.

1970년 닭의 사양수수를 기초로 하여 계란 생산량을 추정 해보기로 한다.

〈표 2〉 계란 생산량 추정

년도	총사양수수	큰암닭수 (6개월이상)	수당산란수	총생산량
1970	22,651,393	15,054,024	165	2,484,913,960
1971	27,600,000	18,216,000	168	3,070,288,000

1971년 총사양수수는 아직 통계 되어 있지 않아 과거 수년간의 닭의 증가 비율을 참고로 하여 예측한 수수이다. 과거의 증가수를 보면 1969년은 제외 하고는 약 3,000,000~5,000,000수 정도가 증가하였는데 1970년 역시 양계의 호경기로 인하여 그정도의 수수는 증가되었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수요량은 1970년도의 총생산량에서 군납 및 종란은 제외 하고는 국민의 식생활에 전부가 소비된 셈이다.

1971년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70년보다 소비량이 약 16%가 증가 되므로 이것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수요량을 추정 하기로 한다.

표3에서 1970년도 1인당 계란소비량 77개는 총생산량에서 군납 및 종란을 제외 하고 총인구에 제한 것이며 1971년 1인당소비량 89개는 19

표 3 계란 수요량 추정

년도	총인구수	1인당계란 소비량	총 수요량
1970	31,000,000	77	2,387,000,000
1971	31,500,000	89	2,783,500,000

표 4 계란의 공급과 수요량 대비표

년도	공급량	수요량	과부족량
1970	2,385,553,960	2,387,000,000	(-) 2,553,960
1971	2,947,488,000	2,783,500,000	(+) 163,988,000

70년보다 수요율이 전술한 바와 같이 16% 증가한 수치이다.

표4에서 공급량과 수요량 대비에서 1970년은 수요와 공급에 과부족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였고 1971년을 추정 한바 생산량이 163,988,000개가 과잉 생산 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난가는 하락 현상을 보이게 될것이다.

근래의 부화율을 살펴 보면 산란계는 거의 외국계에 의존 하고 있는 현실로서 외국계의 도입

3. 1970년도 외국계 도입수수에 의한 추정

표 5 연간 산란계 도입수수

년 도 별	도입수수(산란계)
1 9 6 6	29,926
1 9 6 7	60,065
1 9 6 8	150,420
1 9 6 9	108,266
1 9 7 0	250,263(11월말현재)

수수는 병아리의 발생수수를 예측 할 수 있다. 1970년 늦가을 부터 난가 하락의 주원인이 생산 과잉에 있다고 보면 도입계는 채란양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1969년에 도입한 108,266수가 이와 같이 채란양계에 공황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1970년에 도입된 250,263수는 앞으로 채란양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 여기서 도입계에서 생산되는 초생추수를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도입계수	암	탤	년산란수	중란수	부화율	총생추수	암 병아리
250,000	2,250,000	200	150	70	23,625,000	12,812,500	

1969년말 가축통계에 의하면 총닭수수에서 백색레그혼종이 10,170,000수인데 1970년에 도입한 외국계에서 생산되는 암병아리가 12,815,500수라면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닭의 백색레그혼은 전부 외국계로 대체 하여야 된다는 계산이다.

이상 몇가지 요인으로 금년도 채란양계의 전망을 고찰 하여 볼때 금년도의 채란양계는 주기적으로 오는 공황기에 놓여 있는것 같다.

특히 지난해의 12월의 난가하락 현상과 설상가상으로 무계획적인 외국계의 도입은 더욱 공황기간을 연장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공황기를 눈 앞에 두고 우리 양계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건실한 사업을 경영하여야 하며 특히 고도의 산란율을 올리기 위하여 불량계의 철저한 도태를 할것이다. 계란의 판매는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등 앞으로 탁월 양계불황을 스스로 타개 할수 있는

길을 미리부터 모색하여야 한다.

정부는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중에 가장 알찬 양계업을 다시 공황기에 몰아넣기 전에 계란의 유통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정기금을 활용하여 난가 하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있도록 할것이며, 특히 외국계 도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계획을 세워서 년차적으로 도입수를 감소하는 시책을 요청하는 바이다. □□

☆ 젖소와 닭병전문의 ☆

김영가축병원

전남 광주시 계림동 270~5

광주고등학교 건너편
전화 : 광주 ② 3891